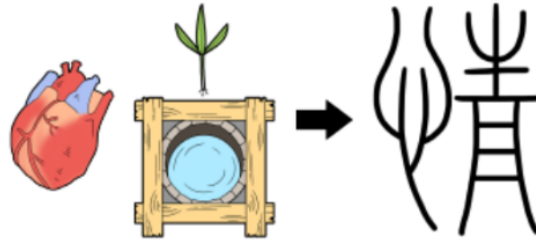


5(2)  
-  
81

회의문자 ①



情

뜻 정

情자는 '뜻'이나 '사랑', '인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情자는 心(마음 심)자와 淸(푸를 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淸자는 우물 주위로 푸른 초목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맑다'나 '푸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사랑'이나 '인정'은 사람의 가장 순수한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情자는 이렇게 순수하고 맑음을 뜻하는 淸자에 心자를 결합해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情자가 워낙 순수함을 뜻하다 보니 '사실'이나 '진상'과 같이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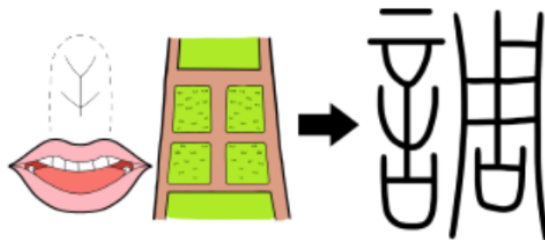
소전

情

해서

5(2)  
-  
82

회의문자 ①



調

고를 조

調자는 '고르다'나 '조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調자는 言(말씀 언)자와 周(두루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周(두루 주)자는 오밀조밀하게 짜여있는 발을 그린 것으로 '두루'나 '세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세밀하다'라는 뜻을 가진 周자에 言자를 결합한 調자는 '(말이)친밀하다'나 '조화롭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고르다'나 '조절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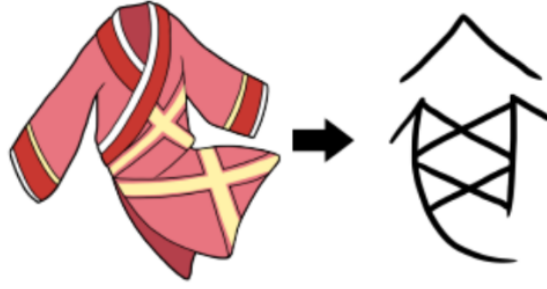
調

소전

調

해서

회의문자 ①



卒

마칠 줄

卒자는 '마치다'나 '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卒자는 衣(옷 의)자와 𠂔(호 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卒자의 갑골문을 보면 衣자 안에 𠂔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관노(官奴)들이 입던 옷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관노들이 입던 옷에 X자 문양을 넣어 신분을 구분했는데, 지금의 卒자는 그 모습이 변형된 것이다. 이 옷은 후에 계급이 가장 낮은 병졸들이 입게 되면서 '병졸'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당시 병졸들의 전투력이 약했기 때문일까? '병졸'을 뜻했던 卒자는 주로 '마치다'나 '죽다'와 같이 생을 마감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種

씨 종

種자는 '씨'나 '종자', '종류'를 뜻하는 글자이다. 種자는 禾(벼 화)자와 重(무거운 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重자는 등에 무거운 붓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무겁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사람을 그린 重자에 禾자가 더해진 種자는 벼씨를 등에 짊어지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곡식의 종자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種자는 종의 다양성에 빗대어 '종류'를 뜻하기도 한다.



소전



해서

5(2)  
-  
85

週

주일 주

형성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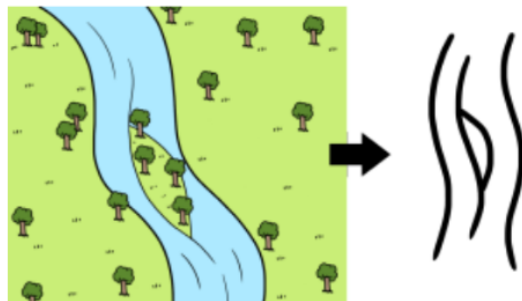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乚(=辵) ㄴ 쉬엄쉬엄 가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주위(周圍)를 둘러 「싸다」의 뜻( ㄴ 주)을 가지는 周(주)로 이루어지며, 「돌아다니다」, 바뀌어 「돌다」의 뜻.

5(2)  
-  
86

州

고을 주

상형문자 ㉠



州자는 '고을'이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州자는 川(내 천)자에 점이 찍혀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점은 하천 중간에 쌓여있는 모래톱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州자의 본래 의미는 '삼각주'였었다. 고대 인류는 물길이 완만한 하천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했다. 그래서 '삼각주'를 뜻했던 州자는 후에 물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산다 하여 '고을'이나 '마을'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水(물 수)자를 더한 洲(섬 주)자가 '삼각주'나 '모래톱'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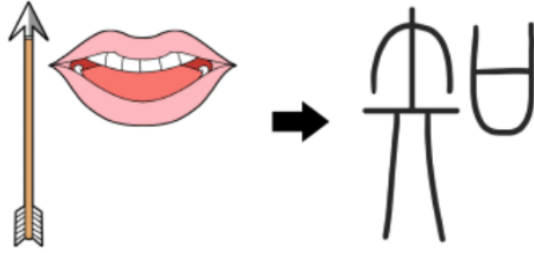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5(2)  
-  
87



知

알 지

知자는 '알다'나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知자는 矢(화살 시)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知자는 소전에서야 등장한 글자로 금문에서는 智(지혜 지)자가 '알다'나 '지혜'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슬기로운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智자는 '지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고 知자는 '알다'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智자는 아는 것이 많아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만큼 말을 빠르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知자도 그러한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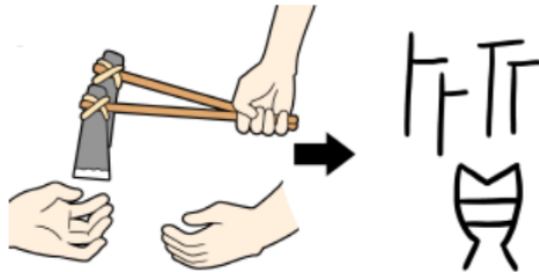
소전

知

해서

회의문자 ①

5(2)  
-  
88



質

바탕 질

質자는 '품질'이나 '본질', '저당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質자는 貝(조개 패)자와 所(모탕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所자는 두 자루의 도끼를 그린 것이다. 質자는 본래 '저당물'을 뜻했던 글자였다. 저당물이란 돈을 빌리기 위해 임시로 맡기는 물건을 말한다. 그래서 두 자루의 도끼를 그린 所자는 '저당물'을 의미하고 貝자는 현금을 뜻한다. 그러니까 質자는 저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담보로 맡는 저당물의 가치를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質자는 '저당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 '본질'이나 '품질'을 뜻하게 되었다.

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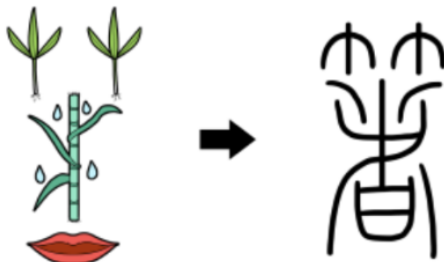



















금문

質

소전

質

해서

5(2) - 89	<div>형성문자 ㉠</div> <div></div>								
着	<p>着자는 '붙다'나 '착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着자는 羊(양 양)자와 目(눈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着자는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着(분명할 저)자에서 파생된 글자이다. 着자는 사탕수수즙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그린 耑(늑 자)자에 艹(풀 초)자를 더한 것으로 '분명하다'나 '나타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耑자는 글자의 조합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므로 着자에 쓰인 羊자나 目자는 '붙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p>								
붙을 착									
	<table><tr><td></td><td></td></tr><tr><td>소전</td><td>해서</td></tr></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5(2) - 90	<div>회의문자 ㉡</div> <div></div>								
參	<p>參자는 '셋'이나 '별 이름', '간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參자는 叒(담 쌓을 루)자와 人(사람 인)자, 彡(터럭 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叒자는 단지 3개의 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담쌓다'와는 관계가 없다. 參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 머리 위로 세 개의 점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점은 밤하늘에 떠있는 '오리온' 별자리를 뜻한다. 그래서 參자의 본래 의미는 '오리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참여하다'나 '간여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참고로 소전에서는 𠂔(별이름 삼)자가 쓰였었다. 또 參자는 숫자 三(석 삼)자의 또 다른 글자로 쓰이기도 한다.</p>								
참여할 참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